

'5월 꽃' 옛말...광주 카네이션 거래량 해마다 감소

aT, 1-6일 445속 판매...지난해 동기간 比 63% ↓ '실용적 선물 선호 영향' 건강식품 판매량 41% 증가

광주지역 카네이션 거래량이 해마다 급감하고 있다. 5월이면 감사의 마음으로 전달하던 꽃을 대신해 다른 실용적인 선물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화훼

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광주 서구 풍암동 화훼공판장에서 진행된 카네이션 경매의 총 수량은 445속(1속은 20송이)으로 전년 같은 기간(1천234속)보다는 63% 감소했고 지난 2022년 1천619속과 비교하면 72%나 크게 줄었다.

동기 대비 올해까지 평균 가격도 2022년 8천981원, 작년 8천631원, 올해 8천413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고 지난해와 비교하면 25% 떨어졌다. 속은 절화 거래의 기본 단위로, 카네이션의 경우 20송이가 1속이다. 다른 품종과 비교하면 카네이션 거래량 감소세는 더 두드러진다. 절화 장미 품종 하절의 경우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경매 총 수량은 1천619속(장미 1속은 10송이)으로 지난해 1천440

속보다 12% 증가했고 2022년 1천288속과 비교하면 25%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다른 품종의 수량은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카네이션 거래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수입산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절화 카네이션 수입량은 올해 1-3월 410으로 작년 동기 346.5보다 18.3% 늘었으며 2022년 285과 비교하면 54.6% 증가했다.

이 밖에도 고물가 경기 악화, 실용적 선물을 선호하는 트렌드의 변화 등의 많은 이유가 손꼽히고 있다. 5월 카네이션이 선물시장에서 점차 밀려나는 것은 좀 더 실용적인 선물을 주고받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금과 상품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영양제·홍삼 등 건강식품을 찾는 지역 소비자도 늘고 있다. 실제 지역 유통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이마트의 건강식품 판매

량은 지난해보다 41.9% 증가했다. 지난 4월에 대비해 24.8% 늘어나는 등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건강식품 판매량이 증가했다. 세부별 품목으로는 종합비타민, 뼈·관절, 눈 건강 관련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신세계 백화점의 경우도 지난해 4월과 동년 대비 건강식품 판매량이 4.6% 증가했고 이종 단백질 관련 건강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인태호기자

토이스토리 입은 BTS 광주신세계, 한정판 골프상품 판매

광주신세계는 7일 "본관 6층에서 BTS 방탄소년단과 세계적인 애니메이션인 토이 스토리가 콜라보한 골프 상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콜라보 상품은 토이스토리 시리즈 중 인기가 높은 캐릭터인 우디, 알린, 햄, 렉스, 버즈 라이트이어, 포키, 닷소 등을 형상화한 옷을 입고 있는 BTS 멤버들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BTS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토이스토리 캐릭터로 표현한 'BTS 타이타닉X볼빅 콜라보' 제품은 단독 한정판으로 희소성이 높다. 대표 상품인 'BTS 타이타닉X볼빅 콜라보' 골프공 7구와 볼마커 세트를 3만4천원에 판매한다.



광주신세계가 본관 6층에서 방탄소년단(BTS)과 세계적인 애니메이션인 토이 스토리가 콜라보한 골프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KT, 고흥우주항공축제서 AI 코딩 캠프

전남전북광역본부,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 400명 대상 체험 운영

KT 전남전북광역본부는 7일 "지난 4일-6일 가정의 달을 맞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일원에서 열린 고흥우주항공축제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AI 코딩체험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 자율주행, UAM(도심항공교통) 등의 다양한 기술을 코딩으로 결합해 미래도시를 설계해보는 체험형 부스를 운영해 축제 기간 동안 지역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KT는 고흥군과 협력해 농촌지역 미래산업 인재육성을 위해 코딩교육 지도자 양성에 필요한 교육강사와 실습 기자재를 지원하고 이번 캠프에 고흥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약 400명을 초청해 미래기술 체험기회를 제공했으며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ESG경영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지정용 KT 전남전북광역본부장은 "KT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미래 기술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앞장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인태호기자

동행축제 연계 '광주·전남 백년소상공인 특별 할인전'

광주·전남 221개 업체 참여...다양한 할인·경품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7일 "5월 동행축제와 연계해 광주·전남 백년소상공인 제품 특별할인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백년소상공인은 오랜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숙련 기술 등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 가능성을 인증 받은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소상공인

으로 광주·전남에는 221개의 업체가 지정돼 있다. 축제기간 중 백년가게에서 BC카드와 NH농협카드를 결제 시 최대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제품 구매 후 영수증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100여명에게 갤럭시 워치, 버즈,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온라인 쇼핑물 11번가에서는 백년가게 및 백년소상공인 제품 구매 시 25%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이대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

책관은 "지역 백년가게·백년소상공인의 제품과 서비스 구매를 비롯해 다양한 이벤트 참여 기회를 통해 소비자들과 소상공인 모두를 위한 동행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백년소상공인 제품 구매인증 증 경품 이벤트 내용과 지역 백년소상공인 정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블로그 소담소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은슬기자

에너지 절약 및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절약 실천요령
1.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여름철 26도, 겨울철 20도)
2.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3.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양배추 도매가 1년 전 두배"...이달까지 비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에 배추, 양배추, 대파 등 주요 채소도매가격이 1년 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출하량이 점차 늘어 다음 달부터는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3월 눈, 비가 잦아 채소 생산량이 줄었고 농산물 품질이 저하된 데다 재배 면적까지 감소하면서 지난달 주요 채소 가격이 급등했다. 품목별로 보면 양배추 도매가격은 지난달 중순 포기당 6천488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88.9% 높았다. 이달 상순 도

매가격이 5천950원까지 내렸지만, 여전히 1년 전보다 115.2% 비싼 수준이다. 배추 도매가격은 지난달 중순 포기당 5천265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8.6% 높았으나 예산, 나주 등에서 시설재배 물량이 출하되면서 이달 상순 4천671원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이달 상순 가격도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40.4% 비싸다. 농식품부는 배추의 경우에도 김치업체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시설재배 출하 물량은 많지 않아 이달 하순까지는 1년 전보다 높게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여보야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 때 "여보야"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에서 "여보야"를 다운로드 받고 당신과 평생을 함께 할 배우자를 찾아보세요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고객센터 1522-3379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Google Play | App Store | ONE store